

-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제목 : 열정이 아니라 진정    성경: 누가복음 10장 38~42절**

**Tag:**

38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39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40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 주라 하소서

41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42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눅10:38-42)

단순히 열정이나 아니냐를 따진다면 열정을 선택해야 한다.

그러나 열정이나 진정이나를 따진다면 단연코 진정을 선택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단순히 열정만 가지고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미이다.

아주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장을 골라보자.

이기적인 열정과 희생적인 열정 중에서 하나를 고르라면 어떤 것을 고를 것인가? 이 경우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는 이기적인 열정에 가까운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선택할 때는 희생적인 열정을 고르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이타적인 인물로 알려진 간디의 실상 소개?)

왜냐면 이기적인 열정은 지탄의 대상이고, 희생적인 열정은 칭송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이 마땅한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희생적인 열정을 고른다.

그러나 사실은 위에서 내가 극단적으로 대조되는 예를 선택했으니 선택하기 쉬웠다.

실제로는 모든 선택이 이처럼 단순하지만은 않다.

오늘 말씀이 그 좋은 예이다.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 예수님이 오셨고, 말씀집회가 열렸다.

적어도 몇 시간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성령으로 충만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열정적으로 그 말씀을 사모하며 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마르다는 그 후의 일을 생각하는 매우 지혜로운 여인이다.

그녀는 말씀 잔치가 끝날 즈음에 식사 시간이 도래할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마르다는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대접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많은 손님들을 대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순간적으로 매우 민첩하게 생각하고 계산을 하였다. 집안에 있는 먹거리와 당장 가장 좋은 음식을 어떻게 요리할 것인지, 몇시간이 걸릴 것인지, 몇 가지 음식을 장만할 것인지, 상차림은 어떻게 하고, 사람들을 어느 곳에 앉힐 것인지를 재빠르게 계산하였다.

그리고 부지런히 손을 움직이는데 그 솜씨가 대단하였다. 그러다 마르다는 다시 한번 더 완벽하고 칭송들을 만한 전체적인 접대 프로세스를 점검하는 가운데 시간이 촉박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앞이 캄캄하고 심장이 멎는 것 같았을 것이다. 이렇게 벌여놓은 잔치마당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막막하였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발치 앞에서 넋 놓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동생 마리아가 눈에 들어왔다. 세월 참 좋구나 생각했을 것이다. 평소 같았으면 넓은 아량으로 동생의 철없는 짓을 과녁치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여성 특유의 질투심이 일어났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여러 가

지 눈치를 마리아에게 보내면서 자신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의사를 표현했을 것이다. 그러나 웬일인지 마리아는 알아들었으면서도 언니의 의사를 무시하였다.

그러자 마르다는 정죄감이 발동하였고, 마르다의 윤리관에 의하면 마리아는 철없는 동생이었다. 마르다의 행동이 여기까지만 이었다면, 굳이 이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것이다.

마르다는 한걸음 더 전진하였다. 이런 전진은 여느 보통 여인들의 행동은 아니다. 마르다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정당성이 분명했으며, 자신의 판단은 타당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이 판단에 따라 당연히 행동해 주어야 한다고 확신했다.

그녀는 당돌하게 예수님께 가서 이 상황에 따른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고, 자신의 판단대로 마리아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뿐만 아니라 마르다는 예수님께 단순히 요청하는 차원이 아닌, 나아가 말아야 할 걸음을 한걸음 더 떴었다.

그녀는 예수님께서서 치밀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계시다고 핀잔을 주었다. 물론 그녀가 예수님을 책망하거나 가르치려는 의도는 없었을 것이다. 다만 예수님께서서 자신의 처지를 모른척하시는 것이 야속했을 것이다.

40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 주라 하소서

마르다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마르다 자신이 하지 말아야하고 해서는 않될 말을 자신의 정의감위에 실어 보냈다.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것은 예수님의 권위를 이용해서 자신의 정당성을 확인시켜달라는 것이다. 얼핏 보면 이것은 사소한 개인의 소원풀이 정도로 여겨질 수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마르다 자신의 정의감과 지나친 열정으로 인해 마리아를 정죄하는 상황이며, 예수님이 이 사실을 모른 채 하고

있기 때문에 편잔을 주는 상황이며, 그러므로 마땅히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어서 가서 언니를 도와주라고 명령을 내려야 마땅하다고 요청하는 상황이다.

인간의 편협한 정의감은 이처럼 무모하다. 동생을 정죄하고, 예수님께 편잔을 줄 정도이고, 감히 예수님께 간청인 것처럼 명령할 정도로 무모하다.

그러나 마르다의 가치관은 예수님 앞에 아무런 정당성도 인정받지 못했다.

41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예수님은 마르다의 지나친 열정에 대해서 이제 그만 염려하고 근심하라고 말씀하셨다.

마르다는 많은 일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였다는 것을 정확하게 진단하셨다.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여기셨다는 것이 아니다.

열정 그 자체를 문제 삼고 이제 열정을 불태우는 것을 그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의 이름을 두 번 부르셨다.

이것은 마치 잠자는 자를 흔들어 깨우려는 듯한 말씀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마르다가 해야 할 행동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을 해 주셨다.

42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첫 번째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음식 몇 가지를 말씀하신 것.

(몇 가지는 두 세 가지 정도 많아야 네 가지 정도라 생각하자.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다. 형편도 다르고, 실력도 다르다)

가장 좋은 선택은 몇 가지만 하는 것이다.

차선은 한가지만이라도 충분하다.

그러나 아주 하지 않는 것, 그리고 몇 가지를 넘어서 하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는 뜻이다.

그리고 마리아는 마르다가 선택한 것 보다는 더 좋은 편을 선택했다는 것을 말씀 끝에 붙여 놓았다. -이 말씀이 핵심적인 말씀이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  
시니라

1. 마르다는 예수님의 발치 앞을 선택하지 않았다. 마리아가 그 장소를 선택했다. 마리아도 음식 준비에 대해서 충분히 예상했을 것인데, 이곳을 선택했다는 것은 나는 음식 준비 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가장 좋은 자리를 선택하겠다는 무언의 암시인 셈이다.

만약 마리아가 사람들 뒤편을 선택했다면 마리아는 분명히 마르다의 손아귀를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정신없이 함께 음식 만드느라 소중한 말씀의 시간을 놓치고 말았을 것이다.(당시는 녹화도 없었고, 비디오도 없었고, 유튜브나 페이스북도 없었다. 그래도 실황 경청을 당할 수 있으랴.)

이 장소의 선택으로 마리아는 내가 좋은 것을 먼저 선택했으니 언니가 음식을 장만해 주었으면 해. 라는 의사를 마르다에게 전달한 것이다.

마르다가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엌에 가서 음식 몇가지 재빨리 만들고 방에 들어와 예수님의 말씀에 동참하면 좋았을 것이다.

2. 만약 마르다가 마리아의 옆자리를 탐냈더라면 마르다는 동네에 음식 만드는 것을 좋아하는 친구를 재빨리 불러들였을 것이다. 아니면 예수님의 일행 가운데 적당한 사람을 찾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매우 비현실적인 방법이긴 하나, 마르다가 최선을 놓치지 않으려면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뜻이다.) 그러나 마르다는 접대에 관한 집주인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선택하였다. 이것도 마땅한 선택이고 칭찬받을 만한 일이다.

오늘 말씀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를 판단하는데 도움을 주는 말씀이 아니다. 최선과 차선 중에서 차선을 선택해야만 하는 사람 일지라도 최선을 위한 차선이 되도록 하는 지혜에 관한 말씀이다.

마지막으로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선택했다고 하셨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왜 하필이면 ‘좋은 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을까? 여기에서는 이 좋은 편에 대한 가장 정확한 해석은 예수님께 더 가까운 곳이다.

왜 더 가까운 곳을 선택했을까? 가까울수록 친밀하고, 더 세심하고 은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더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리아는 이런 좋은 편을 선택했다는 의미이다.

그녀는 결코 이 좋은 편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언니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고, 사람들에게 이기적인 자라는 인상을 주고, 함께 애쓰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이 들지만 그러나 결코 그 모든 것보다 더 좋은 것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다.

아멘.

열정보다는 진정.

<찬양예배>

제목 :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 성경: 고린도전서 2장

Tag:

1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2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복음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것에 대한 강력한 표현

3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왜 약함을 선택했을까? ;사람들에게 경계심을 제거하여 자신의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하기 위함.

-무엇을 두려워했을까? ;4절

4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복음의 효과를 위해서

-설득력에 의지 하지 않으려고 애씀. 설득력을 발휘하게 될까봐 두려워함.

-지혜의 말로 하지 않으려고 애씀. 지혜의 말로 해보려고 노력하게 될 것을 두려워 함.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복음이 전달되기를 소망함.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하려고 소망함.

5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6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7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8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9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구원의 복음은 인간이 만들어 낸 창작물이 아니다.

-인간이 연구해서 얻은 결과물이 아니다.

10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구원은 오직 성령으로 계시되고, 성령께서 깨우치신다.

11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의 속에 있는 영 ; 성령과 교제할 수 있는 각 사람의 영

12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의 영; 성령을 받지 않으면 세상의 영을 받는다.

13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14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15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16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전2:1-16)

-그러나 우리가;그러나 성령을 받은 우리가.